

서울YWCA

2023. 11/12 vol.627



바꾸자!
행동하자!
함께하자!
서울YWCA

모든 생명을 살리
서울YWCA
평등한세

기후위기에
침묵하는 건
범죄 행위
서울YWCA

지구야
살아야
서울YWCA

지구야
미안해.
서울YWCA

서울YWCA
923기후정의행진
멈춰!

또 다른 지구는
없습니다
서울YWCA

이윤 보다 생명
지금당장 기후정의
서울YWCA

채소 한 끼 최소한 끼



‘고기’ 없는 밥상을 상상도 할 수 없나요?

이제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기후위기의 주범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14.5%가 축산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발표)

이것은 자동차, 기차, 오토바이 등 지구상 모든 교통수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양과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또 가축 방목에 쓰이는 땅은 지구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며, 이미 아마존 열대우림의 70% 이상이 목초지, 도살장, 사료 경작지를 위해 벌목된 상태입니다.

소고기 먹는 양을 한 끼 60g만 줄여도,

휘발유차를 10km 덜 탄 만큼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생태영양학 전문가 헬렌 하와트 & 오리건주립대학 연구진)가 있습니다.

매일 실천은 어려워도 하루 한 끼 채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바로 도전해 보아요!

채식주의자, 모두 ‘비건’이 아니에요

비건 Vegan	모든 종류의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아요	
락토-오보 Lacto-Ovo	동물의 알이나 유제품은 먹어요	
페스코 Pesco	해산물과 동물의 알, 유제품은 먹어요	
폴로 Pollo	붉은 육고기(소, 돼지)는 먹지 않지만 닭고기는 먹어요	
플렉시테리언 Flexitarian	채식을 위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육식도 해요	

2023년
11·12월호
627호

서울
YWCA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11월 공동기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당신과 함께한 시간의 길이와 무게를 저울에 달아봅니다.
당신 쪽으로 한없이 기우는 추가 부끄럽습니다.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지요? 이미 넘치게 받았음에도,
당신께 요구만 하는 못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욕심을 비우겠습니다.
오로지 당신으로 채우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아멘.

12월 공동기도

사람이 되신 하나님, 세상이 이리 완강한데, 어찌자고 당신은
슈퍼맨으로 오지 않으셨나요? 전능하신 분이 왜 연약한 아기의 몸을 입으셨나요?
성탄의 수수께끼가 우리를 당혹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김없이 올해도 아기로 오시고, 기어코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 구원의 신비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서울YWCA〉 2023년 11·12월호 통권 제627호 창간일 1966년 3월 1일
등록번호 다-1554호 발행일 2023년 11월 1일 발행인 조연신 편집인 김양선
편집위원장 전영지 편집위원 심주리 이재숙 인 미 최혜란 황정혜
편집 민혜경 성지희 발행처 (사)서울YWCA 주소 04538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전화 02-3705-6000 전송 02-3705-6020 홈페이지 www.seoulywca.or.kr

- 2 **즐거운 불편운동**
채소 한 끼, 최소 한 끼
- 4 **시대를 살리는 말씀**
백 년이라는 시간
- 6 **특집**
너무 우울해 말고 함께 행동하고 응원합시다
- 8 **현장 속으로**
2023 신혼부부학교
모두가 평화로운 살롬의 주일학교를 꿈꾸며
- 12 **살롬한 교회 생활**
성평등 교회운영 매뉴얼 5
평등한 관계편
- 14 **영화와 삶**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영화 〈34번가의 기적〉
- 16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링**
아이들의 ‘성차별 학습의 장’이 된
유튜브 키즈콘텐츠, 이전 바뀔 때!
- 18 **서울Y 소식**
9·10월 뉴스
11·12월 행사안내
11·12월 캘린더
- 24 **Y센터**
선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싱가포르 YWCA
- 25 **알림터**
- 28 **후원 소식**
- 32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정광모, 한국 소비자운동의 역사

www.instagram.com/seoulywca_korea

www.facebook.com/seoulywca

검색창에 서울YWCA

blog.naver.com/ywcaseoul

검색창에 서울YWCA

백 년이라는 시간



황푸하
새민족교회 담임목사
가수

백 주년을 넘어 다시 새로운 한 세기를 시작한 서울YWCA 모든 회원님께 아침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용기와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백 년이라는 시간은 꽤 무거운 시간입니다. 그 안에 있는 땀방울을 다 모으면 얼마나 될까요? 그 안에 있는 기도를 그릇에 담아보면 몇 그릇이나 나올까요? 저는 백 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벅차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제 안에 있는 어떤 기억들 때문일 것입니다.

10년 만이라도...

서촌이 뜨면서 자본가들은 만만한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건물에서 장사하던 가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빈 건물을 팔아서 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인 셈이죠.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잔인하고 합법적인 광풍 안에서 궁중족발이라는 가게 하나가 이대로 쫓겨나지 않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궁중족발 사장님 부부는 그 힘들었던 시간을 다 지내고, 이제 맛있는 족발집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장님들은 또다시 수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바닥부터 시작할 수는 없었어요. 당시 우리나라 상가법은 상가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6년부터는 쫓아낼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정도 장사했으면 됐지 않냐고 말하면서요. 그러나 집기 하나부터 애정을 담아 장사를 시작해 자리를 잡은 가게를 알고 있다면, 그 누구도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궁중족발은 상생을 외쳤지만 결국 깡패용역들을 동원한 강제집행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서촌 거리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피켓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았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라도 하는 듯, 우리는 상가법을 고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임차인 보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걸음에 만족하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결혼을 했고, 프라하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프라하의 종교개혁자 안 후스 광장에 가보는 것이 제 꿈이었거든요. 프라하에 유명한 족발집(폴레노)이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낯았지만 늬름

한 입구를 지나는데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은 그곳이 무려 6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식당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족발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코끝이 찡해지는 것은 깊은 맛 덕분일까요? 아니면 부러움일까요? 우리는 고작 10년 만이라도 가게를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싸웠는데, 600년 동안이나 족발을 삶아 줄 수 있다는 것이 부러워서 그랬을 겁니다. 같은 자리에서 오랜 시간 우려낸 그 깊은 맛 안에는 얼마나 진한 노동에 대한 자부심과 얼마나 많은 단골의 찬미가 배어있는 것인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백 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설렙니다.

새로운 나를 만들어내는 세월의 깊이

저는 매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그것이 제 일이니까요. 맨날 하는 일이니까 익숙해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하나의 예배가 소중한 것은 이천 년 동안이나 한결같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접시의 족발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듯이, 이 예배 안에는 이천년의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가난한 이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한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성찬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우리 비록 배고프더라도 저 부자들의 식탁에 사로잡히지 말고, 여기 이 하나의 빵을 나눠 먹으면서 믿음을 지키자고 서로를 붙들었던 이들의 신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것에 대하여 떨리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의 신비는 우리를 과거로 당기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로 이끌고 갑니다. 이천년의 세월을 담은 2023년의 예배는 결국 현재의 나를 변화시키니까요.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는 우리가 지금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고, 골리앗 앞에 맞섰던 다윗처럼 우리도 지금 권력 앞에서도 떳떳하게 맞설 수 있잖아요. 그때 그들도 새롭게 변화했으면, 지금 우리도 새롭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월의 깊이는 언제나 더욱 새로운 나를 만들어내기에 늘 설레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천 년의 세월을 담아낸 예배처럼

서울Y 회원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혹은 서울Y 백 년의 역사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의 환희, 누군가 내 안에 심어 놓은 꿈, 넘어질 때의 패배감, 갑작스럽게 만나게 된 슬픔과 절망, 고난 앞에서 꿈쩍도 못 할 만큼 나를 지배했던 두려움, 그러나 그 안에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침의 소망. 많은 순간이 있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세월 안에서 모든 순간 함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토록 불안할 만큼 대답 없는 밤을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계십니다.(고후 4:6)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롬 8:26) 긴 세월 동안 꿰어 진 씨간장으로 삶은 족발처럼, 이천 년의 세월을 담아낸 예배처럼, 오랜 세월 암흑 같은 시기였을 지라도 결국에는 이만큼이나 살아낸 서울Y와 회원 여러분의 삶은 사랑스럽고, 달콤합니다. Y

기후위기 시대 너무 우울해 말고 함께 행동하고 응원합시다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기후행동팀장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라고 불리기까지

기후위기가 참사와 재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일상을 위협합니다. 어릴 적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태평양의 섬나라가 물에 잠기고 있다 라고만 들었던 막연했던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이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강남침수, 동해안 산불로 그동안 기후위기에 무관심하고, 노력하지 않았던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름과 단어는 많은 것을 표현하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라고 불리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기후변화가 우리와 밀접한 기후위기로 인식되고, 특정 단체와 사람이 아닌 언론과 시민들이 그것을 동의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나날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남은 시간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2015년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약속했던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지만 지구의 온도는 벌써 1.2도 상승해 0.3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5도까지 상승하기까지 남은 탄소 예산은 6년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1.5도 이상 상승한다면 지금보다 태풍과 폭우, 폭염이

더 빈번해지고, 강력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적인 위협은 인류 전체에 대한 위협이지만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웃들에게는 더욱더 가혹합니다. 이처럼 지금 당장 노력하지 않으면 더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숙제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게 될 것입니다.

5천 명에서 5만 명으로

기후위기는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부탁 받은 원고의 주제가 ‘젊은 활동가가 바라보는 기후위기’지만, MZ세대인 저에게도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해와 내년이 다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예년과는 달라지는, 꺾어보지 못한 지구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날씨만큼이나 신규 석탄발전 건설,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보급률, 후퇴하는 일회용품 규제와 대규모 토목사업 등의 정책도 우리의 미래를 더욱 불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 기후우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실천이
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주변 사람들과 작은 일이라도
함께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기후행동의 현장에서 만난다면
웃으며 서로를 응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글을 적다 보니 너무나도 어두운 글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 세상은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도 변화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는 5천 명의 시민들이 혜화에 모여 기후위기를 외쳤었습니다. 그 외침이 이제는 5만 명의 시민들이 되어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우리의 행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동네에서 제로 웨이스트 상점을 만날 수 있으며, 제로 웨이스트와 비건, 환경실천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힙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움직임에 기업에서는 친환경, ESG가 주요한 사업이자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가 단순히 환경을 넘어, 경제와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민이 변화를 만드는 주체

저는 한 명의 활동가이지만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 모두 한 명의 기후활동가로서 기후위기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행동의 현장에서 서울YWCA 회원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저보다 회원분들처럼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내시는 시민분들이 기후위기의 최일선 당사자이자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주체일 것입니다. 내가 하는 실천이 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주변 사람들과 작은 일이라도 함께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기후행동의 현장에서 만난다면 웃으며 서로를 응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023 신혼부부학교

“서로의 마음썸을 가꾸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서울Y와 유한김벌리가 2009년부터 함께하고 있는 신혼부부학교가 올해는 10월 14일 서울Y 회관에서 열렸다.

15년째를 맞이한 올해 신혼부부학교에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36기(오전), 37기(오후) 총 145쌍의 부부가 입학했다.

신혼부부들은 김병후 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특강, 가수 별이 꾸미는 토크 콘서트, C.A 클럽활동 등을 즐기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서울Y와 유한김벌리는 이번 신혼부부학교 개강을 앞두고 9월 한 달 동안 부부가 ‘서로 돌봄’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며 함께 실천해 보는 ‘함께 챌린지’를 온라인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이 땅의 모든 신혼부부가 서로를 소중히 대하고 서로를 돌보며 건강한 부부·가족 공동체의 힘을 경험해 나가기를 응원한다.



특강 ‘행복해지는 부부 관계 탐구’

김병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보통 결혼 후 5년까지의 관계가, 남은 결혼생활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배우자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먼저 이해하고 사랑하며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토크 콘서트 ‘별이 빛나는 신혼’

별 가수·방송인

“두 분께서 지금 잡은 손을 절대 놓지 마세요. 놓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이 와도, 손 꼭 잡고 함께 가시면, 꼭 행복하실 거라 믿습니다.”



C.A 클럽활동

백미영 정리수납전문가에게 배우는 ‘웃장정리 노하우’ & 홍다솜 마인드페이지 소장자 함께하는 ‘심리검사 그룹 상담’



모두가 평화로운 살롬의 주일학교를 꿈꾸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것은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안전하고 성평등한 살롬의 교회 공동체를 꿈꾸며 기독교여성주의 운동을 전개해온 서울Y는, 사랑의 메시지를 가르쳐야 할 주일학교 교육교재에 특정 존재에 대한 편견이나 배제가 드러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지 살피고, 대안을 찾는 활동을 추진하였다. 본 활동은 (사)시민과 브라이언임팩트가 지원한 프로젝트 마일스톤의 일환으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진행되었다.

◎ 성인지 관점의 주일학교 교재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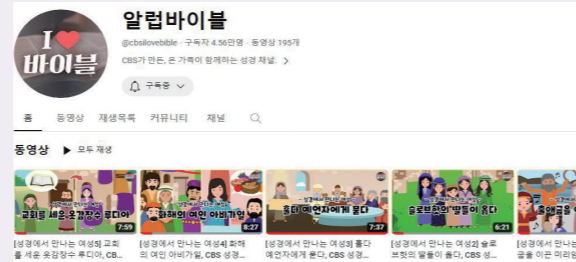
주일학교 교육교재 200권을 다양한 개신교단에서 교육 사역을 하고 있는 청년활동가 5명과 함께 모니터링했다.

- 주요 인물의 등장 횟수 분석 결과, 상위 20명의 인물 중 여성은 3명(하와, 마리아, 에스더)에 그쳤다. 교육현장에서는 주로 남성인물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었다. 대체로 여성 인물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존재로 그리거나, 업적보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사례들을 확인했다.
- 교재에 등장하는 인물(1,648명) 중 성별(젠더) 고정관념이 반영된 인물은 156명(9.5%)이었다. 외모와 신체에서 여성/남성스러움을 강조하고, 직업과 교회사역에서 여성/남성의 일이라는 통념을 반영하고 있었다.

- 등장인물 중 발언을 하는 인물은 여성 135명(24.7%), 남성 419명(75.3%)으로, 주로 남성이 말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었다.
- 성평등 사례는 106건, 성차별 사례는 489건 발견되었다. 성차별 사례 유형은 여성/남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반영한 사례가 204건(41.7%)으로 가장 많았고, 남성을 기본 값으로 두거나 여성을 배제한 성별대표성 불균형 사례가 143건(29.2%), 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배제하고 표준가족을 강조한 사례가 75건(15.3%)으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도 장애인 인종 등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 CBS성경동화 「성경에서 만나는 여성」 시리즈개발

모니터링 주요 결과로 드러난 남성인물 중심의 교육, 젠더(성별)고정관념, 여성에 대한 편견의 부분을 개선해 CBS와 대안콘텐츠를 공동제작했다. 주일학교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는 CBS 성경동화에 「출애굽을 이끈 미리암/ 슬로브트의 딸들이 옳다/ 옳다 예언자에게 묻다/ 화해의 여인 아비가일/ 교회를 세운 옷감 장수 루디아의 다섯 인물」을 조명한 콘텐츠를 개발했다.



◎ 모두에게 평화로운 살롬의 주일학교를 상상하는 공론장

성인지 관점으로 교회 교육 콘텐츠와 교육현장의 상황을 살펴보고 기독교신도와 함께 변화를 모색하는 자리로, 발제와 참여자 토론이 이루어졌다.

성인지 관점으로 본 주일학교 교재

김예리 부장 여성운동팀

기독교가 변화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평등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감수성도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익숙하게 받아 들여왔던 교육 내용과 교육 방식을 낯선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교육

이주아 교수 이화여대 기독교학부 강사

초기 개신교가 여성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평등과 해방을 찾는 역할을 했던 것과 달리, 한국 교회는 성차별적 관습과 가부장적 성서해석이 지배적이다. 교회 내 남성중심적 문화가 신앙의 전통이 아닌 인간 관습의 일부라는 인식을 토대로 공동체 교육과정을 점검해야 한다.

젠더폭력 없는 교회를 위한 교회교육

박신원 실장 기독교반성폭력센터

2018-22년, 기독교반성폭력센터가 만난 성폭력 피해 생존자 중 328명(98.4%)이 여성이다. 교회 내 젠더폭력은 성차별과 ‘힘의 불균형’이 그 기저에 있다. 여성에게 침묵과 순종을 강조하는 교육, 나이와 성별, 직분으로 위계를 만들고

사랑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기독교의 교육은 적어도 차별과 배제 없는 완전한 사랑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교회의 현재이고 미래인 우리 아동청소년 세대들이 변화된 교육을 통해 예수님이 몸소 본을 보이신 사랑을 실천하고 타자를 환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기로 진심으로 바란다. Y 정리 김예리 여성운동팀 부장



그에 따른 역할을 구분하며 사역의 경계를 짓는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차별과 배제 없는 주일학교를 위하여

김준태 목사 예배모임 '숨, 틈'

교육현장의 구조와 교육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일학교 교육현장의 권력 구조와 조건들에 대해 성찰하고, 학습자들이 평등에 관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독교인의 평등감수성에 관한 성찰과 제언

송진순 박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2022/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결과를 보면, 현재 개신교인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한대 등을 인식하고 있지만, 삶에서는 타자를 포용할 수 있는 능력과 평등 감수성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 간극을 좁혀야 하며, 모두가 평등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살롬의 주일학교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다.

성평등 교회운영 매뉴얼

살롱한 교회 생활

살롱한 교회 생활이란 '성평등한 교회', '차별 없는 안전한 교회'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한다. 성평등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차이와 개성을 존중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힘써 하지만, 특히 목회자에게는 성평등한 관점으로 교회와 성도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 서울Y는 성평등 교회운영 매뉴얼 <살롱한 교회 생활>을 제작했다. 교회 구성원이 소외와 차별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교회 운영에 참조할 수 있는 실천방법을 담았다.

평등한 관계편

목사 : A는 취직하더니 더 멋있어졌다. 남자다워졌어. 이제 너희도 결혼해야지. 요즘 시대에 B처럼 참한 자매는 보기 드물어요. 살림도 참 잘 할 거야.

A청년 : (결혼은 내 사생활인데...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아... 네...

B청년 : (지금 목사님이 칭찬이라고 하신 거겠지? 난 살림할 생각 없는데...) 감사합니다.



목사와 청년들의 대화에서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목사와 청년이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성평등한 관계가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 ① 평등한 설교편
- ② 평등한 사역편
- ③ 평등한 교육편
- ④ 평등한 언어편
- ⑤ 평등한 관계편



성평등 관계를 위해 약속해요!

① 위계와 위력이 있음을 인정해요

교회 생활에서 연령이나 직분 등에 따라 수직적 위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목회자,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관계에서 위계와 위력이 있음을 알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특히 목회자는 스스로의 위치와 관계에 따라 위계와 위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목회자가 가진 특권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위력은 구체적으로 행사되지 않더라도 그 존재 자체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위계와 위력이 있음을 인정해 주세요.

② 배려와 존중은 필수예요

교회에서는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만나는 사람은 있니?', '연봉은 얼마나 되니?' 등 지극히 사적인 질문을 쉽게 합니다. 어깨동무를 한다거나 어깨를 토닥이는 등의 신체접촉도 서슴없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누군가에게는 거리낌 없는 행동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받아들이기 부담스럽고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관심과 사랑의 표현으로 한 언행일지라도 당사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친밀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범위도 다릅니다.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존중을 꼭 기억해 주세요.

③ 높임말을 사용해요

목회자는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를 만나고 대화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서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높임말을 사용하지만 목회자는 대상에 따라 반말과 높임말을 구분하곤 합니다. 반말이 친근함의 언어로 사용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목회자의 반말이 듣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높임말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나타냅니다. 목회자에게 위계와 위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실천한다면 높임말 사용은 필수적입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높임말을 사용해 주세요.

“책 속에 길이 있다”지만 요즘같은 영상 시대에는 영화 속에도 길이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화관에서 상영할 때를 놓친 영화를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OTT(Over the top media service)시대를 맞아 아무 때나 어디서나 원하는 영화를 찾아 보는 일이 수월해졌다.



이경순
명예위원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영화 〈34번가의 기적〉

설날이나 추석같은 명절이나 특별한 이름이 붙은 날 TV방송에서 자주 방영되는 단골 영화가 있다. 미국에서는 무려 75년 동안 크리스마스날마다 내보내는 영화가 있다. “죽기 전에 꼭 보아야 할 크리스마스 영화”라고 불리는 〈34번가의 기적〉이 바로 그 영화다. 발렌타인 데이비스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1947년 첫번째 영화가 제작된 뒤 1959년, 1973년, 1994년, 세 차례나 리메이크 될만큼 관객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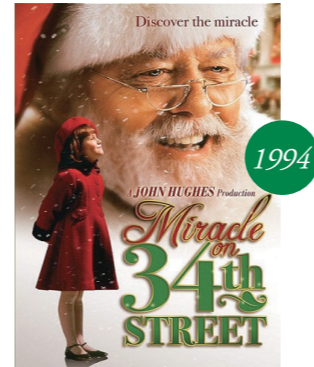
Miracle On 34th Street



백화점 판촉행사에 산타클로스 역할로 고용된 크리스 노인은 어린이 고객들에게 자신이 진짜 산타클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Miracle On 34th Street, 1947
감독 조지 시턴
출연 에드먼드 그웬, 모린 오히라, 존 페인, 나탈리 우드
장르 코미디 드라마 (96분)
제작국 미국



Miracle On 34th Street, 1994
감독 레스 메이필드
출연 리처드 애튼버러, 엘리자베스 퍼킨스, 달란 맥더모트, 마리 윌슨
장르 코미디 드라마 (114분)
제작국 미국

4편의 동명 영화 중에서도 관객들과 평론가들에게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은 조지 시턴이 감독한 1947년판 원조 영화이다. 제20회 아카데미상 작품상 후보에 올랐으며 각색상(조지 시턴)과 남우조연상(에드먼드 그웬)을 받았다. 여주인공 도리스(모린 오히라)의 어린 딸 수잔으로 나오는 나탈리 우드의 아역 연기도 눈여겨 볼만 하다.

영화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백화점 판촉행사 산타클로스 역할로 고용된 크리스(에드먼드 그웬)라는 노인이 자기가 진짜 산타클로스라고 주장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따뜻하고 유쾌하게 그리고 있다. 산타클로스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믿음과 믿음 이상의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던진다.

자신이 산타클로스라고 굳게 믿는 주인공 크리스 노인이 불신과 냉소적인 영화 속 인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영화를 보는 수많은 관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영화라 하겠다.

줄거리

뉴욕 34번가 메이시 백화점의 기획실장 도리스(모린 오히라)는 어린 딸 수잔(나탈리 우드)과 단둘이 사는 워킹맘이다. 이혼의 상처로 매사 냉소적이고 이성적인 도리스는 딸에게 “산타클로스는 없다”고 가르친다. 양로원에 사는 크리스 노인은 우연한 기회에 메이시백화점 장난감부에 산타클로스 역할로 고용되어 어린이 고객들을 상대하게 된다.

엄마가 일하는 백화점에 왔다가 크리스를 만난 수잔은 크리스를 진짜 산타클로스라고 믿게 되고 도리스는 크리스를 못 마땅해 한다. 자신이 진짜 산타클로스라고 굳게 믿는 크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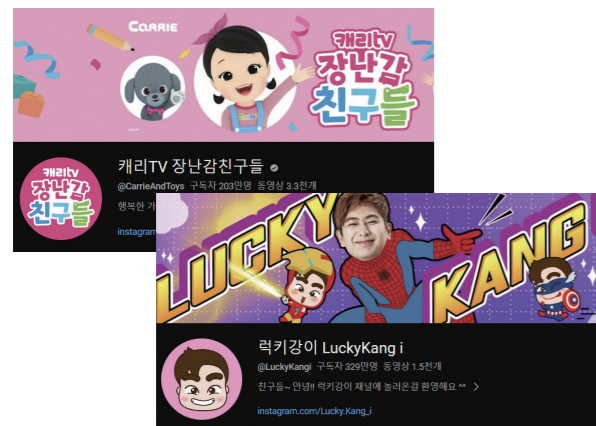
는 정신병자로 몰리게 되고 작은 사고에 휘말려 법정에서 서게 된다. 법정에서는 “산타클로스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논쟁이 벌어지고, 싱글맘 도리스를 좋아하는 변호사 프레드(존 페인)가 크리스 편에 서서 “산타클로스는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다. ♪

아이들의 '성차별 학습의 장'이 된 유튜브 키즈콘텐츠, 이젠 바꿀 때!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아이들의 유튜브 시청률이 대폭 상승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키즈콘텐츠의 일 평균 이용량 증가율은 59.2%. 다른 장르에 비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 콘텐츠 내에서 성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차별적 요소가 여럿 확인되고 있다. 이에 서울Y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단은 조희수 상위의 유튜브 키즈콘텐츠를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했다.

깨지지 않는 '여성=핑크', '남성=파랑' 공식

유튜브 키즈콘텐츠는 다른 매체들보다 더욱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별 이분법적인 인식을 담고 있었다. '여성=핑크', '남성=파랑'이라는 고정관념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분홍색은 '상냥한 말투', '애교', '공주'가 수반되는 반면, 파란색에는 '히어로'와 '영웅'이 따라오는 특성을 보였다. 장난감 소개 콘텐츠에서 여아용은 주로 분홍색에 요리나 화장과 관련한 제품들이 주를 이루었고, 남아용은 주로 파란색 계열에 로봇이 대부분이었다.



▲ 여아 타깃 유튜브 채널아트vs 남아 타깃 유튜브 채널아트

가족 내 성차별이 정당화되는 키즈콘텐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출연하는 키즈콘텐츠도 많았는데, 이 경우 가정 내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요소들이 발견됐다. 엄마는 힘이 세고 목소리가 큰 '몬스터'로 불리더라도 항상 가사와 돌봄 노동을 전담하는 모습이 당연시되고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들이 '화목한 가정의 일상' 정도로 그려지며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이 출연하는 콘텐츠에서는 항상 엄마와 아빠, 자식들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 형태만이 보였다. 획일화된 한 종류의 가족만이 등장하는 것은 자칫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외모, 외모, 외모!

또한, 여성 청소년이 등장하는 채널에서는 외모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장면이 다수 발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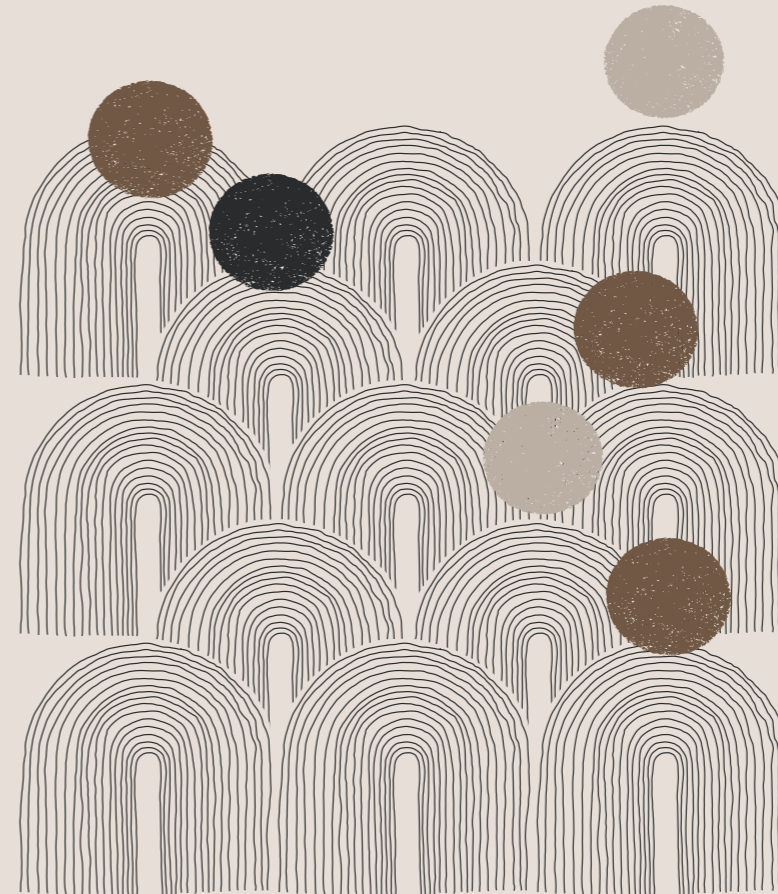
가령 여성 중학생이 유명 아티스트로부터 화장을 받아, 촬영을 하는 아이의 엄마가 "댄 사람이 됐다", "자연스럽고, 학생답다", "(화장품)하나 발랐는데 얼굴색이 환하다"며 외모를 평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장면들은 '화장을 해야 예뻐지는 것', '여성은 예뻐야 한다'는 외모지상주의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더 평등하고 다양한 키즈콘텐츠가 필요한 때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아동·청소년기에 젠더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메시지가 담긴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왜곡된 젠더 인식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어린이들의 유튜브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유튜브 키즈콘텐츠 또한 젠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더 평등한 콘텐츠를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모니터링 대상 유튜브 순위사이트 '튜브몬' 내 '키즈' 분류 중 2023년 8월 기준 인기 순위권 채널 20개 모니터링(채널당 최근 6개월 이내 영상 중 높은 조회수 순으로 영상 5개씩 모니터링, 총 100개 영상)
모니터링 기간 2023년 9월 6일 - 9월 20일

2023년 기독교시민아카데미 갈등 사회에서 기독교시민의 길을 묻는다



2023/11/21, 28, 12/12
(매주 화) 14-16시
서울YWCA 1층 마루
(유튜브라이브 생중계)

1강 11월 21일(화)

사유하고 성찰하는 성숙한 기독교시민

"사유하지 않는 시민에게
정치적 자유는 없다"
사유하는 주체는 인간, 이들이 모여
민주주의 사회를 만든다!
현명한 시민과 공동체 연대,
민주주의 사회를 생각해 본다.

김선옥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
마이클 샌델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감수

2강 11월 28일(화)

백래시 시대를 사는 기독교시민

변화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백래시(Backlash)현상을
들여다보며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기독교시민의 자세를 고민해 본다.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백래시 정치』 저자

3강 12월 12일(화)

기독교인을 위한 정치학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 기독교인이라면
좋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피할 수 없는 소명이다!
정치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서울YWCA가 사회적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묻는다.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민주주의의 시간』 저자

강남청소년수련관 개관 30주년



서울Y 강남청소년수련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아 10월 27일 기념행사를 수련관 강당에서 열었다. 기념예배에서 장운재 목사(서울Y 고문·이화여대 교목)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바탕으로 '사랑의 시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강남청소년수련관이 예수님처럼 '사랑의 시인'이 되어, 계속해서 청소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그 존재만으로도 아름답다고 노래할 수 있기"를 축원했다. 기념행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은 강남청소년수련관이 앞으로 '사람의 가치를 빛나게 만드는 수련관'이라는 미션을 넉넉히 이루어가기를 온 맘으로 응원했다.

2023 생명살림 바자회

서울Y는 10월 19일 회관에서 '함께 실천하는 여성이 세상을 바꿉니다'를 주제로 '2023 서울YWCA 생명살림 바자회'를 열었다. 생필품과 기증품 알뜰 판매 외에도 아나바다, 먹거리 장터, 행운 마켓 등이 풍성하게 진행됐다. 특별히 회관 야외공원에서 펼쳐진 제로웨이스트 로컬푸드 미니마켓이 화원과 시민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번 바자회의 수익금은 '서울Y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 100'을 통해 정의·평화·생명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쓰일 예정이다.



봉천

지역공감 어울림 축제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10월 21일 제10회 지역공감 어울림 축제를 청림동 어울림길에서 진행했다. 매년 3천여 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대표 행사로,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개최됐다. 총 34개에 이르는 체험·놀이·먹거리 부스와 더불어 초청공연, 주민 장기자랑, 아나바다 플라마켓 등이 풍성하게 펼쳐지며 주민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었다.



누리봄

특별행사 'Blossom the 누리봄'

누리봄은 2023 특별행사 'Blossom the 누리봄'을 10월 28일 삼모아트센터 라비니아홀에서 개최했다. 누리봄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연극 '거인의 정원'과 우쿨렐레 연주를 선보였다. 아이들의 열정과 넘치는 끼 그리고 아름다운 우쿨렐레 소리는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노원

결혼이민자 취업박람회 참석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9월 21일 영등포구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5회 결혼이민자 취업박람회에 참여했다. '관공업 특별전'이라는 테마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400여 명이 방문했으며, 노원센터는 취업컨설팅관에서 노무상담 부스를 운영했다. 노원센터 부스에서 상담을 받은 구직자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게 된다.



영등포

세무회계사무원 양성과정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는 9월 5일 경력보유여성 직업교육훈련 '세무회계사무원 양성과정'의 일자리협력망 자문회의를 열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포함한 총 5개 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해 본 교육 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협력망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료생에게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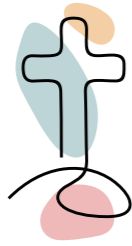
김진덕정경식재단, 서울Y 방문 환영

청소년문화공간 '마루' 새 단장을 위해 2021년 후원한 '김진덕정경식재단' 김한일 대표, 김순옥 재무이사장, 김순란 이사가 10월 6일 서울Y 회관을 방문했다. 새롭게 탄생한 마루에서 서울Y 소개 영상을 시청한 후, 도너월을 비롯한 대강당, 스포츠센터 등을 둘러봤다. 특별히 마루에서 활동하며 성장하고 있는 서울Y 청년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앞으로도 서울Y가 김진덕정경식재단과 손잡고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 나아가 사회의 건강한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창립 101주년 기념예배

기념예배
설교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담임)
찬양집회
인도 히즈윌(His Will) 김동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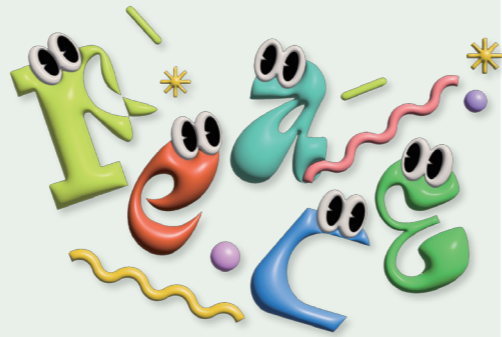
- 일시 12월 8일(금) 10:00
- 장소 서울Y 대강당
- 내용 기념예배, 찬양집회
- 문의 02-3705-6001, 6007

시민건강교실 중년여성 건강회복 탄력성 증진 운동 프로젝트

서울Y 스포츠센터가 무료 시민건강교실을 열고
함께할 중년여성시민을 초대합니다

- 내용
 - 요가 동작을 기반으로 한 신체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
 - 올바른 신체 정렬과 균형 찾기
 - 코어근육 사용법 배우기
- 대상 40-69세 여성 누구나
- 일시 11월 22일(수)-12월 1일(금)
매주 수·금 10:40-11:30
- 장소 서울Y 스포츠센터
- 문의·신청 02-3705-6030, 6032

평화통일리더 양성교육



현재 한반도는 분단 극복 과제와 동시에 세계 정세의 불안정과 다양한 폭력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논의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서울Y가 청(소)년들과 함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11월 18일(토) **변화하는 동아시아 정세와 한반도 평화**
김용재 유엔협회세계연맹 수석
- 11월 25일(토) **전쟁과 여성, 그리고 평화**
김정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 시간 11:00-13:00
- 장소 서울Y 1층 마루
- 혜택 점심식사, 봉사시간 인정
- 신청 서울Y 홈페이지
- 문의 02-3705-6023

교육 프로그램

노원 •문의 02-951-0187

과정명	교육일정
디지털커머스, 잘 배우면 돈이 보여요	11월 9일(목)-12월 1일(금) (목금 10:00-13:00)
해외쇼핑몰 아마존 입점실무 (글로벌셀러)	11월 13일(월)-12월 1일(금) (월수금, 9:30-13:30)

* 교육비 별도 문의

영등포 •문의 02-858-4514

과정명	교육일정
펜드로잉(여행스케치)	11월 20일(월)-12월 13일(수) (월수 19:00-21:00)
문화체험해설사	11월 22일(수)-12월 29일(금) (수금 10:00-13:00)

* 교육비 별도 문의

생태와 여성의 눈으로 성서 읽기

서울Y가 기후위기를 성서적 가치관으로 새롭게 성찰하고, 인간 삶의 근원적인 질문을 제기하며 기독교적 생태여성주의를 사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보건, 기후, 전쟁, 경제 위기 등 다중위기(polycrisis) 시대, 기독교 정신과 여성의 가능성으로 서로 소통하고 연대함으로 사회를 변화를 꿈꾸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10월 25일(수) 서울Y와 생태여성주의
- 11월 1일(수) 생태여성주의와 세상 읽기
- 11월 15일(수) 생태여성주의와 생명 읽기
- 11월 22일(수) 생태여성주의와 욕망 읽기

- 강사 송진순교수(이화여자대학교 외래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부목사)
- 시간 16:00-18:00
- 장소 서울Y 다목적실
- 문의 02-3705-6097

(사)서울YWCA 제4회 정기총회



(사)서울YWCA 제4회 정기총회가 2024년 1월 25일(목)에 열립니다.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 감사·결산·사업보고와 함께 2024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채택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4년 1월 25일(목)
- 문의 02-3705-6001, 6017

CALENDAR

2023 **11**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 씩크머니 정기모임 13:00

6 7 8 9 10 11
 · 씩크머니 CA교육(7일) 9:15 (대신중)
 · 청(소)년 평화아카데미(10일) 9:15 (대신중)
 [위원회] 재정 11:00
 · 청(소)년 평화아카데미 13:25 (대신중)
 · 청(소)년 평화아카데미 13:10 (경기여고)
 [특별회원 신입교육] 가사돌보미 · 아기돌보미 10:00
 · 이사 워크숍 10:00
 [월례회·재교육] 요양보호사 12:00
 · 그린Y 정기모임 11:00
 · 은하수 멘토링 · 평가회 11:00

13 14 15 16 17 18
 · 역대이사모임 11:00 [이사회] 10:00
 [위원회] 회원활동팀 11:00
 영등포Y 14:00
 · 생태와 여성의 눈으로 성서 읽기(22일) 16:00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여성능력개발팀 11:00
 여성참여팀 11:00
 · YW-YM 연합예배 11:30
 [위원회] 강남Y 11:00
 국제협력팀 10:30
 · 씩크머니 '금융인과의 만남'
 · 청(소)년 평화통일활동가 양성교육(25일) 11:00

20 21 22 23 24 25
 [위원회] 평생체육팀 11:00
 [위원회] 노원Y 10:30
 누리봄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 씩크머니 C.A교육 14:10 (이화여고)
 · 봉천 후원자 · 자원봉사자 감사 송년행사

27 28 29 30
 [위원회] 봉천Y 11:00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특별회원 신입교육] 가사간병사 10:00

CALENDAR

2023 **12**

월 화 수 목 금 토

1 2
 · 씩크머니 정기모임 13:00

4 5 6 7 8 9
 [위원회] 재정 11:00
 [창립 101주년 기념예배] 10:00
 [월례회] 돌봄회원 성탄행사 14:00
 · 그린Y 정기모임 11:00

11 12 13 14 15 16
 [이사회] 10:00
 [위원회] 여성참여팀 11:00
 [특별회원 신입교육] 가사돌보미 · 아기돌보미 10:00
 [위원회] 강남Y 11:00
 국제협력팀 10:30
 · 청(소)년 송년페스티벌 & 우수활동가 대회 13:00

18 19 20 21 22 23
 [위원회] 평생체육팀 11:00
 [위원회] 노원Y 10:30
 누리봄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월례회·재교육] 요양보호사 13:00
 [위원회] 회원활동팀 11:00
 영등포Y 14:00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여성능력개발팀 11:00
 [특별회원 신입교육] 간병사 10:00
 · 그린Y&은새미로 환경 멘토링 11:00
 · 키다리학교 정기모임 13:00

25 26 27 28 29 30
 성탄절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특별회원 신입교육] 가사간병사 10:00

선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싱가포르 YWCA



싱가포르Y 사무실 앞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가 필자 박진선 부장.

감사하게도 지난 5월부터 비영리활동가를 기업가정신을 가진 사회혁신 리더로 양성하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참가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7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는 이 아카데미에 서울Y 선배들이 참여해 도전을 얻고 좋은 리더로서 변모하는 모습을 보아왔기에, 기회가 되면 꼭 참여해보고 싶었다. 소셜벤처 창업가 2명(남성)과 비영리 기관 활동가 3명(여성)으로 구성된 우리 팀은 나이, 관심사, 활동 경험도 달랐지만, 기울어진 주식시장에서 “똑똑한 투자자를 양성하여, 거버넌스가 건강한 기업에 투자하는 문화를 만든다”는데 뜻을 함께했다. 같은 분야의 사회혁신 소셜 생태계를 탐색, 벤치마킹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9박 10일) 일정으로 태국과 싱가포르의 6개 사회단체와 기관을 방문했다. 그중 한 곳으로 싱가포르YWCA를 찾았다.

싱가포르Y는 1875년 설립되어 148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와 같이 자국 내 최초 여성운동단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성과 청소년의 필요 충족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시화에 따른 여성들의 안전한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호스텔이 현재 YWCA호텔 포트캐닝으로 자리잡았다. 싱가포르Y는 최초

여성 스포츠 클럽, 근로여성을 위한 야간학교, 비즈니스 전문직 걸스 클럽, 2차 대전 후 사회 재건을 돕는 일을 해왔다. 또한 산업발전과 베이붐 시대 여성의 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아동발달센터로 출발한 보육서비스가 변모하여 현재는 취약계층을 위한 방과 후 돌봄, 유치원(싱가폴 전역에서 9개)이 운영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Empowering Moms(엄마에게 힘줄어주기), Empowering Young Women(청소년 지원), YWCA Weaving(직조) 프로그램 운영에 주력하고 있다.

싱가포르Y 홈페이지에는 148년 역사, 이사 경영진 소개, 연례보고서와 재무제표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안내, 자원봉사자 모집과 직원채용 코너와 함께 기부코너가 상설 운영되고 있었다. “얼마나 기부하는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는가가 중요하다”는 헤드라인이 기부의 방향과 의미의 중요성을 전하며, 온·오프라인 기부, 기업 기부, 현물 기부(쌀, 식용유, 분유, 정어리, 비스킷, 기저귀 등 30가지 제품) 등 기부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과 방식을 열어두어 싱가포르Y가 선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싱가포르Y 회관 전경



직조 프로그램 교육 현장

역사와 지역을 넘어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라”는 정신 아래 여성의 삶에 주목하며, 시대적 상황과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해 온 싱가포르Y. 바로 이것이 148년간 지속해온 힘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며, 101년을 넘어 서울Y가 나아갈 방향을 비춰 보는 시간이었다. ♪

글_박진선 생명운동팀 부장

회원 소식

차지현 청소년위원회 위원

10월 18일(수)~24일(화)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에서 2023 한국미술 아트피아회 창립 23주년 기념전 개최

김인석 회우 · 철학박사

10월 24일(화) 회개영성훈련원에서 제2회 회개학교 영성 치유강좌 강연

한새빛 회원

10월 29일(일) 시집 『새벽날개』로 제12회 한국작가문학상 본상 수상

정상미 회원 · 극작가

11월 2일(목)~19일(일) 대학로 예그린씨어터 연극 <낙원상가> 극본

스포츠센터

‘기구(리포머) 필라테스’ 강습

필라테스는 조셉 필라테스가 창시한 프로그램으로 바른 자세로의 교정과 재활 등을 목적으로 신체 근력과 유연성을 발달시키는 운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Y 홈페이지 스포츠센터 게시판에서 확인)

- 강습 안내 주 2회(월·수, 화·목) : 154,000원
주 1회(금) : 80,000원
- 문의 02-3705-6030

2023 서울YWCA 생명살림 바자회

후원 감사합니다

광동제약(주)	(주)비바스포츠
글로우데이즈	(주)빙그레
농협 명동지점	(주)아모레퍼시픽
더스킨 화장품	(주)에치와이
동서식품(주)	(주)오뚜기
롯데컬처웍스 주식회사	(주)웰코스
롯데웰푸드	(주)제이앤케이플러스
마더네이처	(주)홍진경
마크트웨인	(주)휴엘
매일유업(주)	코웨이(주)
삼성전자(주)	콤마, 와인
서도비엔아이(주)	풀무원재단
서울우유협동조합	해태제과(주)
아미코젠케이뉴트라팀프	3M
위드썬 주식회사	CJ제일제당(주)
(주)LG생활건강	LG전자(주)
(주)농심	NS홈쇼핑
(주)더부움	



서울Y 회원 동아리원을 모집합니다

서울Y 회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극단 축

창의적인 여가 문화생활 영위와 연극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을 하는
극단 축에 서울Y 회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신청 대상 연극에 뜻이 있는 서울Y 회원 누구나
- 문의 경규선 단장 010-8909-2901

▣▣▣ YWCA 합창단

아름다운 노래와 성가를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역사 깊은 YWCA 합창단의 단원이 되어보세요

- 모임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 신청 대상 노래와 합창을 사랑하는 서울Y 회원 누구나
- 문의 김희순 단장 010-3687-9647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하는 '복멘토링 프로젝트'의 복멘토가 되어주세요

복멘토링 활동은?

소년원 여성청소년 친구들과 1:1 멘토 멘티가 되어
함께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지쓰기 활동입니다

- ※ 매칭된 청소년의 퇴원 전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최소 24개월)
- ※ 도서구입비 후원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02-3705-6034

생활돌보미 교육생 모집

서울돌봄과살림은 신입 돌보미회원을 모집합니다.
교육 이수 후 구비서류를 제출한 회원은 취업까지 연계가 가능합니다.

직종	대상	교육일	교육비
가사돌보미	65세 이하 여성	11월 9일(목)	1만원
아기돌보미	63세 이하 여성	12월 14일(목) 10:00	
세이프맘			
간병사	65세 이하 여성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12월 21일(목) 10:00	4만원
가사간병사		11월 30일(목) 12월 28일(목) 10:00	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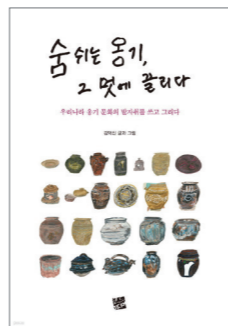
- 신청 교육일 3일 전까지 전화신청
- 문의 02-3705-6013~4 / 02-3705-6071~2

회원이 낸 책

숨 쉬는 옹기, 그 멋에 끌리다

김덕신 역대이사 글 · 그림
김윤정 번역
코드미디어 펴냄

반평생 옹기를 수집하고 사랑해 온
김덕신 역대이사가 우리나라 옹기
문화의 발자취를 쓰고 그렸다.
한반도 그릇이자 문화의 효시이며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옹기의 개
념과 의미, 선과 문양, 세계문화유
산에 등재되어야 하는 이유까지 담
아냈다. 옹기를 통해 생활을 아름



답게 가꾸어 왔던 조상들의 멋과 맛의 지혜를, 오늘을 사는 우리와 내일을 살아야 할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탄생한 책이다. 옹기가 전 세계에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문판(김윤정 세계장신구박물관 큐레이터 번역)을 함께 수록했다.

IOPE



바르는 입체각 리프팅 NEW PDRN X CAFFEINE SHOT

감사합니다

2023년 8월-2023년 9월

도너월 업그레이드



- Y-Honors Club(1억원 이상) 이행자
- Y-Friend Club(1천만원 이상) 이종미

특별 후원



- 김명자 명예위원 청(소)년 평화통일 프로젝트 사업후원
- 이행자 증경회장 직원복지 후원

일반 후원



강명희 강서현 고려욱 고선혜 광민규 구영숙 권혜진
 기영숙 김미자 김병호 김선자 김소희 김숙희 김옥매
 김윤희 김인복 김정순 김해정 김현경 김 형 민혜경
 박대화 박숙자 박위자 박정희 박제희 박진선 박혜리
 배은경 배정미 서해영 석성욱 송순옥 심영자 양수경
 양진화 염현경 오준호 우정현 우주훈 우훈희 월요커피
 유광주 육순연 윤혜선 이봉주 이애진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이은숙 이재림 이종미 이행자 이홍자 임중현
 장민경 장수자 정문욱 정석용 정수경 정승원 정은숙
 조성환 조순영 조연신 조종남 지복임 채서은 채제호
 최경자 최 불 최혜란 하태진 한정신 홍근표
 주식회사 아키엘로건축사사무소

복멘토링 후원



구영숙 김민아 김상희(김하나) 김선자 김성연 김정숙
 김지영 김진숙 김혜경 남은희 박나영 박미소 박소현
 박용천 박진선 박채원 배은경 손예림 손지용 송태연
 신여명 신정숙 심영자 양진화 염현경 예정원 우영숙
 월요커피 유지현 이연배 이윤선 이재림 이푸른하 이현미
 이희정 임재연 정나미 정모아 조민형 최동수 최 불
 최정우 최하나 최혜영 한혜영

재능 기부



- 최혜란(홍보출판팀 위원)
- 2023년 9·10월 회보 '예술과 여성' 칼럼 기고

월 CMS 후원



감윤우 감윤익 강경아 강경희 강금미 강남이 강동우
 강영숙 강문숙 강미영 강민아 강선경 강수미 강신범
 강신봉 강영숙 강영임 강유민 강윤정 강은영 강일훈
 강주현 강창석 강하자 강형식 경규연 계속화 고경혜
 고광표 고동연 고선자 고선혜 고선환 고성희 고은경
 고은비 고은정 고은화 고은희 고인미 고재욱 고희애
 고희자 공명주 공민희 공우재 광동운 광미숙 광민정
 광지영 구다은 구미영 구수영 구우영 구지영 권경자
 권규상 권기웅 권내영 권범찬 권부남 권성준 권순철
 권예현 권우경 권은희 권정연 권정희 권지혜 권태진
 권혁준 권현준 권형하 권혜진 권희원 권희정 길명경
 길소연 길인숙 길종선 김경미 김경미 김경미 김경배
 김경삼 김경선 김경아 김경옥 김경원 김경일 김경화
 김경훈 김경희 김관옥 김관채 김광수 김귀숙 김규진

김금자 김기연 김기호 김나영 김남미 김다임 김대영
 김대진 김도근 김동건 김동은 김동현 김동형 김두희
 김량순 김말녀 김명수 김명후 김문자 김문희 김미경
 김미경 김미라 김미선 김미재 김미정 김미정 김미현
 김민기 김민성 김민숙 김민영 김민지 김배옥 김병수
 김병호 김보라 김봉근 김봉희 김상권 김석대 김선경
 김선덕 김선미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성민 김성민
 김성애 김성준 김성진 김성혜 김성희 김세진 김소망
 김소은 김소희 김수언 김수연 김수연 김수진 김수현
 김수호 김순경 김순남 김순연 김순연 김순임 김순자
 김순자 김승재 김시은 김양미 김양선 김양숙 김예스터
 김연경 김연숙 김연순 김연자 김연희 김영숙 김영식
 김영심 김영옥 김영주 김영혜 김예지 김예지 김옥민
 김용관 김용숙 김용숙 김용임 김우인 김원경 김원경
 김유성 김유진 김윤나 김윤종 김윤지 김윤진 김윤희
 김은경 김은민 김은애 김은애 김은주 김은혜 김은희
 김은희 김익동 김인석 김인하 김자희 김재경 김재숙
 김재신 김재영 김재윤 김재진 김재현 김정구 김정남
 김정대 김정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애 김정연 김정옥
 김정완 김정자 김정철 김정환 김종문 김종숙 김종운
 김준희 김지나 김지민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은 김지혜
 김지희 김지희 김 진 김진서 김진선 김진숙 김진숙
 김진아 김진향 김진호 김창섭 김철민 김철주 김철준
 김춘자 김충헌 김치백 김태경 김태식 김태연 김태준
 김태준 김태한 김동범 김하나 김해정 김형미 김향점
 김현경 김현경 김현숙 김현숙 김현영 김현일 김현정
 김현정 김현중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현진 김형모
 김형빈 김형순 김형순 김형순 김형태 김혜경 김혜성
 김혜실 김혜양 김혜정 김혜진 김홍우 김화숙 김효숙
 김효은 김희열 김희영 김희원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준 김희준 나미정 나선화 남궁정 남궁진 남궁혜정
 남상택 남연정 남윤경 남희숙 노남례 노미선 노승은
 노인화 노일권 노정자 노혜환 동지현 류종현 류 혁
 마초희 명정신 목동진 문경혜 문다영 문미현 문신환
 문응식 문자영 문현숙 문형규 문형진 문혜경 민경술
 민동성 민선기 민수홍 민여진 민정애 민지홍 민혜경
 민혜경 박강규 박경미 박경옥 박경호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광택 박구자 박근화 박노영 박명윤
 박문성 박미경 박미영 박미용 박병주 박상건 박상수

박상정 박선미 박선주 박소윤 박소현 박소현 박순애
 박순주 박시윤 박신자 박양신 박영미 박영선 박영순
 박외정 박용진 박우표 박운용 박윤경 박윤술 박은영
 박은지 박은혜 박인선 박지현 박정연 박정우 박정원
 박정희 박종천 박종화 박종희 박주영 박지영 박지훈
 박 진 박진숙 박진실 박진용 박찬인 박초순 박춘필
 박춘화 박태경 박태희 박한철 박현숙 박현숙 박혜리
 박혜숙 박혜자 박혜진 박휴영 박희봉 방윤옥 방윤우
 방혜영 배광순 배민선 배상현 배수남 배영우 배윤주
 배은경 배은진 배정미 배정숙 배종우 배진영 배호성
 백명숙 백민주 백성원 백옥선 백은선 백은엽 백인성
 백정금 백 준 백지우 백향덕 백향란 백향은 변영순
 변은수 봉진영 서근배 서락원 서미화 서빛나 서영미
 서예석 서옥덕 서은경 서정연 서정희 서정희 서지영
 서해원 서현옥 석상화 석성욱 석영미 성경관 성덕화
 성연석 성윤수 성지윤 성지윤 성지희 성진원 성호숙
 손승혜 손승희 손지용 송경진 송길례 송상경 송세은
 송옥의 송윤주 송이라 송재임 송정민 송종우 송창은
 송태연 송하윤 송혜승 신경자 신동선 신동원 신민자
 신상용 신상우 신승우 신승주 신연식 신용자 신정옥
 신지숙 신지원 신지윤 신지혜 신찬용 신총섭 신현미
 신혜경 심경호 심재원 심정자 심주리 심혜영 안병수
 안성포 안성훈 안순자 안승계 안영신 안영운 안영호
 안외숙 안유진 안윤희 안정국 안정희 안주희 안지혜
 안진희 안진희 안진희 안태건 안하나 안혜리 양명옥
 양세진 양수정 양영순 양영애 양종숙 양진영 양현옥
 엄수길 여명진 염문철 염미행 염용희 염은애 염지수
 염지희 오경아 오명화 오미영 오성아 오소연 오연아
 오영아 오은주 오재준 오점희 오지영 온기석 왕정환
 용윤희 우수경 우승현 우영숙 우재하 우정희 우현주
 우훈희 원경애 원연정 원유철 원혜숙 위정선 유규진
 유남석 유남실 유덕호 유동미 유미나 유미영 유병순
 유성희 유 숙 유순희 유승연 유예목 유은경 유은희
 유재미 유재현 유정신 유정순 유정한 유주빈 유현숙
 윤경례 윤경숙 윤경진 윤광미 윤문노 윤미경 윤미소
 윤상은 윤서희 윤 선 윤선영 윤선희 윤성섭 윤소영
 윤소영 윤순민 윤장범 윤재복 윤재숙 윤재혁 윤정향
 윤정화 윤정희 윤지영 윤지완 윤 혁 윤형석 윤혜섭
 윤혜진 윤희경 윤희숙 윤희정 이가영 이가영 이건우
 이건우 이건학 이경근 이경민 이경아 이경애 이경연

이경옥 이경자 이경희 이광희 이교신
 이규택 이금재 이기경 이기쁨 이기현 이기화 이나경
 이남연 이덕순 이돈행 이동숙 이동오 이동윤 이동현
 이명순 이명우 이명혜 이미숙 이미진 이민석 이민선
 이민정 이범재 이병희 이복현 이복희 이봉주 이봉희
 이상명 이상욱 이상원 이상윤 이상해 이상훈 이선미
 이선영 이선화 이선희 이선희 이상우 이상원 이소진
 이수범 이수빈 이수연 이수연 이수영 이수윤 이수진
 이순영 이순옥 이순천 이슬기 이승민 이승연 이승한
 이아름 이아영 이애경 이애리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석 이영숙 이영자 이영진 이영희 이예은 이옥경
 이용숙 이용호 이원애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이윤정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빈 이은선 이은숙
 이은아 이은아 이은영 이은영 이은이 이은자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혜
 이은희 이은희 이응열 이재건 이재경 이재연 이재옥
 이재욱 이재정 이재준 이재천 이재혁 이재혁 이정구
 이정석 이정석 이정수 이정수 이정숙 이정아 이정은
 이정인 이정임 이정한 이정현 이정환 이정희 이종규
 이종미 이종석 이종욱 이주연 이주형 이주형 이준혜
 이증자 이지범 이지선 이지숙 이지연 이지영 이지현
 이진규 이진아 이진영 이창희 이재진 이푸른하 이한기
 이한성 이 행 이행남 이행자 이향숙 이한국 이한순
 이현심 이현아 이현옥 이형숙 이혜미 이혜영 이혜원
 이혜주 이혜진 이화정 이효정 이희남 이희전 임경희
 임동숙 임등자 임미령 임미영 임병일 임선미 임성준
 임순화 임양수 임은유 임완철 임유경 임재연 임재영
 임정자 임정화 임정훈 임준호 임중현 임지은 임지현
 임춘화 임현주 임혜연 임호환 임희진 장경미 장경세
 장경화 장금환 장길례 장선희 장수용 장순복 장영랑
 장예선 장용익 장주연 장철승 장현주 장혜영 장 훈
 전경희 전덕기 전민구 전병우 전상숙 전소영 전영삼
 전영지 전유오 전윤숙 전인옥 전하라 전행옥 전홍신
 정경문 정경미 정경욱 정경원 정동신 정명숙 정문욱
 정미선 정미성 정민선 정상미 정새와 정서진 정선덕

정선주 정선화 정선희 정세호 정소희 정수경 정숙향
 정승원 정승원 정승혜 정애경 정여백 정연수 정연우
 정영룡 정영희 정예슬 정우연 정원화 정유리 정유진
 정은주 정은진 정은하 정재훈 정정순 정정애 정정일
 정중화 정중화 정준선 정지연 정지영 정지원 정지향
 정진우 정진희 정창용 정해윤 정현아 정현정 정현주
 정혜령 정혜수 정혜승 정혜진 정화자 제오복 조계연
 조규성 조규원 조길수 조남익 조남임 조대신 조명희
 조미선 조성미 조성미 조성진 조성재 조성호 조성환
 조세환 조연신 조오영 조용선 조원식 조윤신 조윤영
 조재상 조점순 조정현 조정현 조준하 조종희 조진희
 조형윤 조혜성 조혜전 조홍신 주명애 주민숙 주소은
 주우철 주지성 주형로 지경표 지미화 지 영 지영찬
 지 인 진영선 차경희 차미연 차지혜 채송화 채송화
 채재호 채정림 채지은 최광기 최기은 최명민 최명진
 최명혜 최명희 최문정 최민영 최민호 최 봄 최봉수
 최새름 최새래 최선미 최성현 최수희 최순자 최순태
 최승미 최승민 최승아 최승환 최영실 최영아 최영주
 최용운 최운영 최유나 최유정 최윤서 최윤주 최윤희
 최윤희 최은성 최은주 최정호 최정희 최종대 최종인
 최지영 최지영 최지은 최지은 최지희 최현경 최현주
 최혜원 최호길 최희숙 탁순희 탁정미 하령자 하재희
 하정미 하태성 하태진 한가원 한경희 한다정 한명희
 한민희 한성우 한숙명 한숙희 한승연 한승연 한승희
 한예성 한옥연 한완영 한용순 한윤경 한이수 한인선
 한 정 한정신 한정원 한정화 한지현 한진숙 한현식
 한혜정 함봉진 허경희 허미란 허선영 허영록 허영숙
 허지웅 허철영 허혜정 현명금 현은순 홍경화 홍선미
 홍수연 홍승연 홍윤서 홍은미 홍정남 홍정혜 홍주실
 홍학희 홍현표 홍호성 홍희정 황경희 황명숙 황보림
 황보영 황선미 황선영 황순분 황어진 황영신 황왕연
 황용숙 황용하 황윤희 황은경 황주혜 황지희

(주)건축사사무소빅 (주)시공디자인 그린에이전시
 세무회계사무소지성 스튜디오GAGA 씨에라여성의원
 양재2동어린이집 주식회사 제이글로리 중앙이엔씨 콤마,와인
 파티인테리어 향기나무

12시간 후*에도 탄탄한 피부 힘
 진생 안티에이징
 수려한 진생 에센스^{AD}



후원 계좌

농협 317-2021-0710-91

(예금주 : 사단법인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문의 02-3705-6041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광모

한국 소비자운동의 역사
서울Y 19대 회장 (1929 - 2013)

빨간색 상의와 은발이 트레이드마크였던 정광모 선생.
우리나라의 소비자운동을 시작하고 이끈 독보적인 인물이다.

선생은 1929년 11월 25일 수원에서 태어나 이화여중·고교와 이화여대를 거쳐
1951년부터 평화신문, 서울신문, 한국일보 등에서 언론인으로 재직했다.
1968년 여기자클럽 회장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하며 소비자운동을 처음 접하고
같은 해, 이사로 활동하던 서울Y에서 국내 최초로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구성했다.
1970년 한국소비자연맹을 창립하며 소비자문제 여론화에 힘쓰고
1978년에는 민간 소비자 6개 단체를 모아 소비자단체협의회를 발족시켜
1980년 1월 소비자보호법이 제정 공포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1985년부터 1989년까지는 서울Y 회장을 맡아 일했다.

소비자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며 '12월 3일 소비자 보호의 날' 제정(1996)에도
기여한 선생은 소비자운동 관계자로서는 처음으로 1996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2004년에는 한국여성지도자상을 수상, 사후 201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되었다.
별세 전날까지 빨간색 옷을 입고 다니며 불량 기업과 악덕 상인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애쓸 정도로 43년간 소비자운동에 헌신한
선생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소비자단체들은
국내 최초로 선생의 장례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으로 치렀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선생의 업적을 기리며
정광모 평전 「소비자, 생각을 깨우다 행동을 이끈다」 (북스포어, 2020)를 출간했다.